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제 646 호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박민식 장관, “정율성 기념공원 저지 총력…장관직 걸어”



= 박민식(사진 오른쪽)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오전 순천역에서 6·25 학도병으로 참전한 고병현(94) 응과 함께 현화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광주 출신 중국 혁명유아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역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공산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에 장관직까지 걸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광주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할 수는 없다”며 “수많은 광주 시민, 호남 주

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이 활동한 항일무장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김원봉 단장의 기

학도병 전투인 ‘화개전투’를 치렀다. 이 전투 덕에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박 장관은 “수많은 독립투사, 호국 영웅, 민주 열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근

현법소원 등 법적 조치 시사…순천역에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추진

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강행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문제도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중앙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을 검토에 착수

했으며, 현법소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

념공원이 경남 밀양에 조성된 것과 관련 “의열단 기념관이고 그중에 김원봉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립 최고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은 잘못된 것”이라며 직격했다.

박 장관은 이날 순천역 광장에서 호남학도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역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순천, 여수, 광양, 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 18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학도병 참전을 결의했던 것이다.

6·25전쟁 최초 학도병 중대가 편성됐고, 1950년 7월 25일 이들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북한군 6사단 1천여명과 첫

현대사의 아픔을 극복하는 역사에서 호남은 늘 앞장서 왔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느냐. 공산당의 나팔수나,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호남학도병 영웅들이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6·25 학도병으로 참전한 고병현(94) 응과 만나 ‘영웅의 제복’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인 점 등을 지적하며 공원 조성 사업 철회를 요구해 이에 맞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논쟁이 벌어졌다.

/ 송진영 기자

민주 “이재명 ‘9월 국회 본회의 없는 주 출석’ 檢에 통보”

9월 셋째 주 조사 염두에 둔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쌍방을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8일과 2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각각 21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요구대로 조사가 이뤄지면 내달 말인 추석 연휴 전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협의한 것은 아니고) 대표가 통보한 것”이라고 말해 실제 출석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쌍방을 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3일 제3차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금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를 날인 24일과 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이날까지 양측은 정확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28~29일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30일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가, 31일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다”며 “9월에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과 일정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대표가 재차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것은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야욕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 임정수 기자

尹, 한총리와 수산물 점심…대통령실 “수산물 점심에 직원 몰려”

日 오염수 방류 후 안전 강조·수산물 소비 장려 차원



조기에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내식당 점심에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내내 구내식당에서 수산물을 배식할 예정이다.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 명게 비빔밥과 우렁탕수, 바다장어 덮밥과 전복 버터구이, 물회 등이다.

/ 조현정 기자

AI to [Everywhere]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내 손안의 AI 친구 A(에이트)

AI로 하늘길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UAM

다양한 산업의 진화를 위한
SKT AI 반도체, 사피온

AI 기반 동물 진단 서비스, X Caliber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설리번플러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미디어 AI Btv까지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to Everywhere
SK telecom

'9월 4일' 단체행동 놓고 교사들도 찬반…혼란 이어질 듯

집회 운영팀 해체→다른 준비팀 결성…'공교육 멈춤'에는 8만3천명 참여 의사

서울 서초구에서 숨진 초등교사를 애도하기 위한 교사들이 9월 4일 집단 연가에 대해 교육부가 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연가·재량휴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집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9월 4일까지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전날 오후 늦게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9.4 공교육 멈춤'에 더 많은 교사가 모이는데 집회가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을 하거나 연가·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고, 집회 참석 자체가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교사들끼리 분열하지 않도록 집회를 취소하고 운영팀도 해체한다고 적었다.

이들은 다만, 집회 운영팀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팀'과는 별개라고 강조하며 서초구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초 예고했던 대로 국회 앞 대규모 집회는 열지 않더라도 학교별로 재량휴업을 하거나 교사 개인별로 병가 등을 내고 추모의 뜻을 밝힐 것이다.



전국교사일동,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집회

는 방식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대한민국 교사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

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은' 학교단위 재량휴업이나, 교원들의 개별적인 병가 움직임으로 진행되는 흐름"이라며 "단체 집회 없이 개별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기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교사 집회 역시 9월 2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당분간 재정비의 시간을 갖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예정대로 집회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또 다른 집회 준비팀이 등장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9월 4일 이전까지 혼란은 더이어질 전망이다.

교育부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 움직임

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재확인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 등이고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연가를 내고 개인적으로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연기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고 밝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집회 주관 교사 등 4개 단체가 모이는 4자 협의체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9월 4일은 혼란의 날이 돼서는 안 되며 진정한 추모와 교육 공동체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라며 "4자 협의체에서 교원보호 방안과 서이초 선생님 사망 원인 진상 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교육부·교육청 계획에 학교 현장 요구 반영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 정유진 기자

찰청·북부경찰청 등에 3곳이 개설돼 있다.

또 지자체에서 자율방법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상 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전국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며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이상 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 안전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자선 기자

행안부, 시도에 CCTV·정신응급대응센터 확대 설치 요청

'이상동기 범죄' 대응 회의 개최

방지차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8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차지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

아울러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정신 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 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신 응급 합동대응센터'는 정신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로,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

또 지자체에서 자율방법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상 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전국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며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이상 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 안전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자선 기자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법정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한다



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 향후 교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재판부가 지금 증거자체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별 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호민 측 국선변호사는 이날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재판부 "전후 사항 파악할 필요 있어 10월 30일 공판서 듣겠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1일 경기도교

육청은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주 씨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직위 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 김준성 기자

공항, 새로운 시작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초융합 글로벌 공항그룹으로 43년간 쌓아온 공항운영 노하우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원희룡 “집값 급상승 속단 않도록…꾸준한 ‘공급신호’ 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가급적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시장에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고 청약 경쟁이 불붙는 조짐을 보이자 일종의 ‘구두 관리’부터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 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기에 이 추세대로 가면 연말 인허가 물량은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 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다.

을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천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천490가구로 50.9%



기자간담회 입장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대세상승 바람직하지 않아…상승 심리 번지는 것 막아야”

“국토부도 전관 카르텔 우려…LH보다 고강도로 혁신”

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 또는 본격적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았기에 주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새로운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라 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절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문제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데다 역시 전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

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에 대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 검토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며 “강도 높은 자기수술 또는 외부수술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 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1등 기업이 아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초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적인 원조와 차관, 재건사업 타당성 조사, 폴란드에서의 후방 기지 사업, 사업 컨소시엄을 짤 수 있는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수립에 집중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년째 뮤어둔 레미콘 미서트

력 수를 2년 더 뮤어두기로 한 국토부 결정에 대해선 “자영업(영업용 레미콘 미서트) 수급 조절을 한 것이지 레미콘 회사들이 직접 인원을 고용해 4대 보험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무제한으로 (증차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업계에서 아쉬워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일방적인 (레미콘 미서트의) 카르텔이라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자가용(직접 고용)을 늘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 체형민 기자



28일 인천 중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를 방문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 제품의 방사능을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장, 급식납품 수산물 점검

“방사능 안전 염려안해도 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인천 중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를 방문해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급식 납품 수산물의 가공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방사능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등에 수산물 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내 유통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에서는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모든 수산물 제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진

행한다. 김태용 인천가공물류센터 품질 위생과장은 “원료 입고 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완제품도 검사한다”며 “현재까지 부적합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김마 핵종 분석기를 이용해 수산물 제품의 방사능을 분석하는 과정과 식품 제조 공정 등을 점검했다.

그는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검증한 수산물을 민간에서 한 번 더 검사하는 것”이라며 “방사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때까지 방사능 안전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지혜 기자

보훈부·보훈단체 총공세…광주 뒤덮은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장관직 걸고 저지”…보훈·보수단체, 철회 촉구



북한 영웅 정율성 공원 조성 호국영령들이 통탄한다 즉각 중단하라!

28일 오후 광주시청에 광주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보훈·보수 단체 등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애초 기념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시작했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내 논란은 확산 일로에 접어들었다.

박 장관은 28일 전남 순천역에서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 대장이었다”며 “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에 장관직까지 걸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호남 학도병 성지인 순천에 현충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자리였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광주 보훈단체들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북한 영웅 정율성 공원 조성에 호국영령들이 통탄한다”고 비난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도 참석해 “광주 정신은 공산주의자를 기념하는 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 광주시·전남도당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참여자들은 ‘시민 협세 48억원 정율성 사업 반대’, ‘여기가 평양이니, 광주냐’, ‘공산당 나팔수 정율성 사업 철회’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를 흔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주기한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율성은 광주 태생일 뿐 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도 아니다. 중국에서 민족의 우상으로 평가받는다면 표지석 정도 설치하는 게 맞지, 수십억 원 세금을 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역사학자, 시민 공청회 등 겸증과 역사적인 평가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4·19 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개 단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3개 일간지에 역사공원 건립 반대 광고를 신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사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강 시장은 이날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기념사업)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으로서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주최위원회에서 정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율성과 관련한 역대 정부 활동을 열거한 뒤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장대로 고립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우호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시가 책임을지고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광주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색깔론과 이념 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강동민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농협 이미지 농촌 독거 어르신 밀벗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일부 전화 서비스로 마련한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은행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BUSAN, KOREA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민주, 워크숍 총집결해 “민생”…“정권 폭주 바로잡겠다” 다짐도

168명 중 166명 참석…“정기국회에 나라 명운 달려” 대여 투쟁 각오 모아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부강사 초빙, 총선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의원 워크숍에 총집결해 정기국회 및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으로서의 대여 투쟁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이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한 워크숍에는 168명 중 일정 탓에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빼 166명이 참석, 98.8%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노타이에 흰색 상의로 ‘드레스 코드’를 통일한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과 함께 주먹을 쥐어 들어올리며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한번 신발 끈을 고쳐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이준관 시인의 ‘기을 떡갈나무 숲’이라는 시의 일부 구절을 읊기도 했다.

그는 “떡갈나무가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민주당이 외롭고 쓸쓸한 국민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정기

계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 우리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온 혁신 역량과 그 DNA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바탕으로 비상식과 비정상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며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길을 확실히 모색하고 국민께 보여드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활동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민생 채움’ 7대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입법과제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 폭염 노동자 보호법 ▲ 혁신성장 지원법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교육 보호법 ▲ 저신용자 신용 대출 확대 등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법 ▲ 영세 건설 사업장 개선법 등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달 ‘민생채움 단’을 꾸려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추렸다.

또한 정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람 중심의 2024년 예산 제시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초 발표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전열도 가다듬었다.

이들은 이후 외부 초빙 강사의 여론 조형과 총선 전망 강연에 이어 한병도 전략 기획위원장의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벌이고, 상임위 별 분임 토의에도 나선다.

이튿날인 29일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한다.

/ 송원석 기자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출범식

2023. 8. 28.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임시 의장을 맡은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출범…“민관 가교 역할”

김영호 장관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하면 북도 변화 택할 것”

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규범에 기초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북한인권 증진은 가장 중요한 통일 준비 과제 중 하나”

라며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 행태를 날낱이 알리면서 한목소리로 인권 개선을 압박해 나간다면 북한 당국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제사회에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고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창립총회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대표,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등 창립 준비위원회 인사들과 김상국 통일부 인권정책관, 이재준 전 러시아 대사,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사무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 김원석 기자

SAMSUNG

구형 TV 중고로 팔려야 새 TV로 바꾸자는 경제관념 확실한 우리 아내

상받을 만해



삼성 TV로 바꿔보상

대국민 TV 보상 페스티벌 ‘삼성 TV로 바꿔보상’

최대 100만 포인트 보상 혜택부터 Neo QLED 189cm 경품 당첨의 기회까지!
지금 전국 삼성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만나보세요.

2023.06.01~07.31

Neo QLED 8K | Neo QLED | QLED | OLED



World EXPO 2030
BO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최대 100만 포인트는 삼성전자 홈페이지 포인트로 지급. 멤버십 기간이 필요하며 결제로운 상황을 수 있습니다.

* 매장에 따라 해외 수령 가능합니다. 구입 모델은 89cm 이상 Neo QLED를 찾으세요.

17년 연속 세계판매 1위 |
2005~2022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Omdia 기준

양향자 주도 ‘한국의희망’ 창당대회…“정치 기득권 깨부술 것”

최진석 상임대표·양향자 공동대표 체제…금태섭, 류호정 등 내빈으로 참석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양향자 공동대표(왼쪽)와 금태섭 전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의희망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서약에서 “한국 정당은 실력도 비전도 품격도 염치도 없이 권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습을 바꿔가며 정치를 망치고 민생을 해치며 국가 미래를 별목 잡고 있다”며 “한

국의희망은 정치의 본령인 경제 발전, 국민 통합, 비전 제시, 국민 행복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주력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건너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창당준비위원회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상임대표, 양 의원이 공동대표로 각각 추대됐다.

최 상임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철학적 높이에서 포착한 대한민국의 한계

가 한국의희망에 의해서 돌파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인재를 배양하고, 부단히 혁신하는 일을 하면 선도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공동대표는 “정치 기득권을 깨부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정치세력의 엄청난 저항과 반동이 있을 것”이라며 “거칠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중앙당 지도부에서는 최 상임대표와 양 공동대표를 비롯해 최연혁 정책연구소 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 김법정 전 환경부 기조 실장, 정보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전 국가안보실 통일 비서관실 행정관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날 한국의희망 창당대회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금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도 내달 19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 계획이다.

/ 송유영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안해…당, 무공천할 이유 없어”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8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무소속 안 나간다”고 답했다.

당에서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무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당의 무공천 방침 확정시 김 전 구청장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날 김 전 구청장이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당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지도부와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저에게 뭔가 의논을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보궐 원인 제공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취지는 해당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한다는 뜻)인데,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공익신고로 정권이 교체됐다. 해당 행위가 아니라 당에 공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호성 기자

‘흉기소동’ 전직 요리사 영장 기각…“범행 인정하고 반성”



주말 저녁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전직 요리사 정모(37)씨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

한 데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은 평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사

구속심사 마친 뒤 “속상해서 그랬다” 오열

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정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며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말했다.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흉기 8개에 대해서는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다. 조율증 악물 치료를 중단한 이유를 묻자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당시 흉기로 자신

의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

협함에 따라 테이저건(전기총격기)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2시간40분 만에 제압했다. 설득 과정에서 정씨 요구대로 소주와 치킨을 사다주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정씨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고 낚시에 쓰려고 차랑에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흔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와 가족 진술로 미뤄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정씨는 4년 전 조율증을 진단받았으나 현재는 악물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범행 당일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 임주환 기자



제주해경 해상특수기동대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역량 강화

중국 휴어기 종료 앞두고 제주해경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

중국 어선 휴어기 종료를 앞두고 해경이 불법조업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경비함정 해상특수기동대원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해경은 다음 달 15일부로 중국 어선의 자체 휴어기가 끝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 침범과 무력 저항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단속 절차, 나포 시 유의사항, 진압장비·무기 등 각종 장비 활용

/ 남희준 기자

“내년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지난달 열린 지역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지역구 의원의 총선 지지를 호소한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천 시장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 제보자가 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도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제보자가 활동한 영상을 보면 천 시장은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시민대동제’ 행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당시 천 시장은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 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주막을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제보가 접수된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9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시장의 관권 선거 개입에 따른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

/ 최병훈 기자

검찰,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 징역 1년 구형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트 유통 업자 B(54)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천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조잡한 짝퉁 골프채는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으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실제로) 돌려줬다”며 “청탁도 없었고 대가

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 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시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 업자 B(54)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천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8년에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 오창민 기자

‘1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영장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원대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범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횡령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

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시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씨를 구속해 구체적 횡령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와 함께 공범 황씨의 신병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 수익은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 황경호 기자

우리를 지켜준 당신
우리가 지켜갈 당신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출범에 발맞춰 더 나은 보훈의료복지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당신의 건강한 오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삼성, '외국인 경력 채용' 첫 도입…R&D 분야 글로벌 인재 확보

삼성전자·디스플레이·SDI, 다음달 8일까지 지원서 접수

삼성이 '외국인 경력사원 채용'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등 연구 역량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3사는 연구개발(R&D) 분야 외국인 경력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은 그동안 전 세계의 R&D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리쿠르팅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국내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를 위해 새롭게 '외국인 경력사원 채용 전형'을 도입했다. 해외 현지에서 근무할 인재를 뽑는 것과 별개로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 경력사원을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외국인 인력은 각 계열사의 국내

사업장에서 국내 임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보유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

내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유관 경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석·박사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수학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한다.

지원 희망자는 삼성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삼성은 9월 서류전형, 10월 면접, 11월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이 좋아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이 한국에 남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

승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인력의 취업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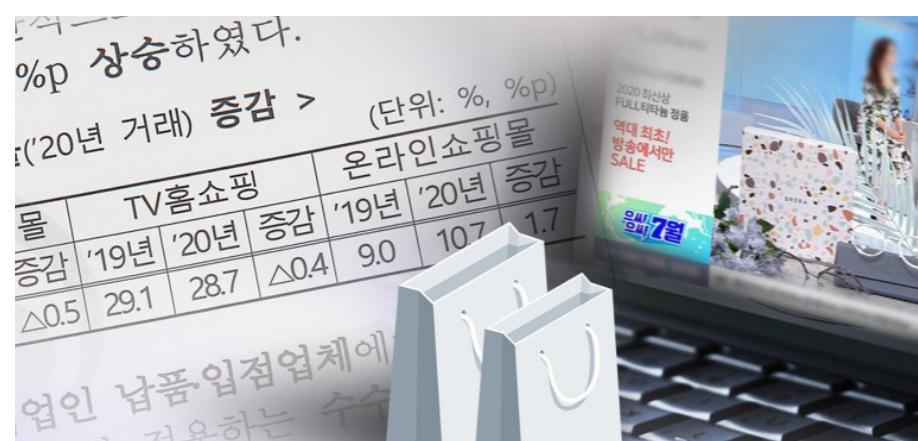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은 현재 내국인 R&D 인력을 대상으로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은 다음 달 초에 하반기 신입사원 정기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은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사원 정기 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가 함께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 신입 채용 절차는 직무적합성검사와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면접 등을 거쳐 진행되며 예년처럼 상·하반기 합쳐 1만명 이상을 채용할 전망이다.

/ 권정석 기자

홈쇼핑 수수료 갈등 극한으로…CJ온스타일도 송출 중단



홈쇼핑 업계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28일 LG헬로비전에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은 CJ온스타일을 볼 수 없게 된다.

CJ온스타일은 송출 수수료 기본 협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도 송출 수수료 갈등 끝에 일부 사업자에 송출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홈쇼핑 업계와 유료 방송 사업자는 오랜 기간 송출 수수료 문제를 놓고 갈등을 거듭해왔다. 특히 최근 홈쇼핑 업황이 악화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결국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송출 수수료 규모는 1조9천65억원으로

방송 매출액 대비 비중이 65.7%에 달했다. 반면 홈쇼핑 업계의 업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2020년 1천557억원에서 매년 200억원씩 줄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4%나 급감한 259억원에 그쳤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방송법 위반에 따른 새벽방송 중단 영향까지 겹치며 2분기 영업이익이 20억원으로 92.8%나 급감했다. CJ온스타일도 연간 영업이익이 2020년 1천798억원에서 지난해 878억원까지 떨어졌다.

CJ온스타일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 수수료가 3천691억으로 방송 사업 매출의 74.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 오은주 기자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서비스·재원·인력구조 개편”

“공영방송, 특혜 당연시하면서 노영방송…특정진영 정파적이해 대변 바로잡아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 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이 지방분해 도움?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15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 15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수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혼탁하는 부당광고이므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민간광고검증단’도 가르시니아 등 특정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 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 감량 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민희준 기자

**이동관
세상에
이동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뜻드립니다

Every Step for GREEN

PROJECT LOOP
프로젝트 루프
생활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세상을 더 가치있게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롯데화학 가족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그동안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접수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들이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고, 조직 수장이 면직되는 등 사태로 사실상 심물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이제껏 겪은 여러 힘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을 뿐”이라고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가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를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보궐 이사 임명 안건 등을 의결한 데 이어 주요 과장·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취임 첫날부터 내부 인적 개편에 착수했다. / 강현주 기자

대전시, 운전면허 반납 혜택 확대 검토…대상 70세 상향 추진

최대 30만원 차등 지급 협의 예정…고령자 면허반납률 9% 불과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1만47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1만1천560명의 9.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고령자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만원인 반납 혜택을 최대 3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허를 소지만 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 지금처럼 10만원을 지급하되, 반납 할 당시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는 등 실제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3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면 필요한 비용이 많아지는 만큼 예산 협의 과정에서 혜택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 65세 이상인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면허를 반납한 3천504명 중 65~69세는 5.9%인 207명뿐이었다.

나머지 94.1%인 3천297명이 70세 이상이었지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2



만7천57명) 가운데는 12.2%만 면허를 반납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70세 미만은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해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어려울 수 있는 70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면허 반납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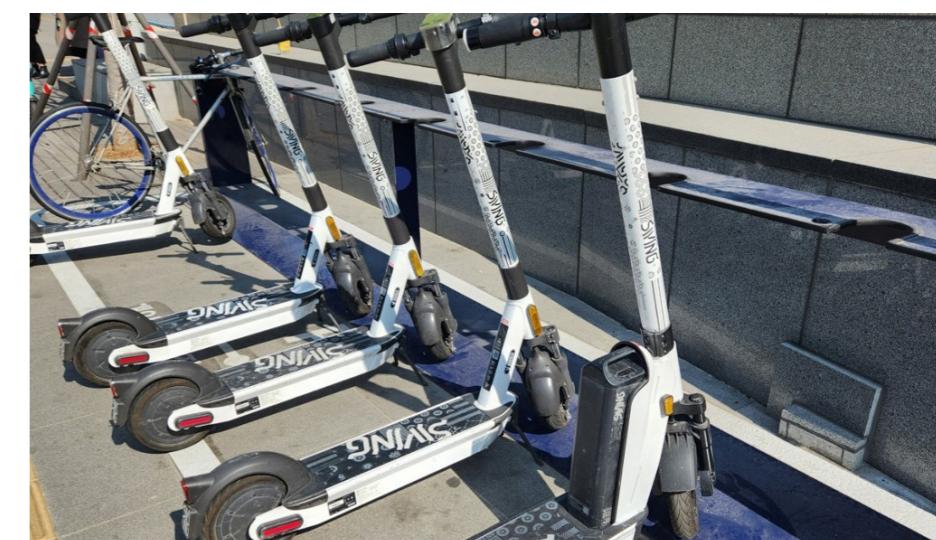
대전시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구 협력회의를 거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서울·인천·광주·세종시가 운전면허 반납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대전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 사고는 2018년 865건에서 지난해 1천75건으로 5년 사이 24.3% 증가했다.

이 기간 총 5천130건의 고령 운전자 사고로 59명이 숨지고 7천363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2018년 7천487건에서 지난해 6천768건으로 9.6% 감소했다. 사망자는 85명에서 47명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운전면허 갱신 때 적성검사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정은 기자



국토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기준 마련한다…시속 25km 이하로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된다.

국도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만들 때 적용되는 기준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이런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

계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규정했다. 과선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를 설계 속도별로 제한을 뒀다.

또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보도와의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인 분리가 어렵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이 필수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 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했다.

/ 민자환 기자



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우해승 노조위원장은 “생태계 파괴와

지역 문제 등 다양한 지역 사회 기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노은 기자

원주시청노조, 박정하 의원과 유해식물 ‘가시박’ 제거 봉사활동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6일 지정면 옥계대교 인근에서 환경 유해식물 ‘가시박’ 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차원에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30여명이 활동에 나섰다. 가시박은 토양에 다른 식물이 자라날 수 없도록 타감물질을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주한미군, 연천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위해 평상 만들어 전달



주한미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에서 들어 전달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평상을 만

들어 전달했다.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94군사경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 50일 만에 파업 잠정 중단

노조 “광주시 직접 운영 등 요구”…7월 7일부터 파업

광주시의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가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쟁의 행위를 중단했다.

다음 달까지 병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광주시·사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전 조합원 60명 중 지난달 7일부터 파업에 참여했던 50명은 현재 병원으로 복귀해 정상 근무 중이다. 다만 광주시의 병원 직접 운영, 단체 협약 승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아닌 만큼 전면 파업 철회는 아니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 무작정 파업만 벌일 수는 없었다”며



“병원을 우선 정상화한 뒤 사측, 광주시와

지속 협상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업 장기화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 장수경 기자

오늘,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새로운 동력이 출향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그리고 LNG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발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어디에서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한화는 앞으로도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을 찾아 끊임없이 혁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Hanwha

“관광 활성화” VS “교육환경 위협” 세종시 숙박시설 허용 논란

나성동 아파트 입주민들 “모두 만족하는 후보지 제시해야”

세종시가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광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인 어진동·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허용을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성동 주거지역 숙박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주거지역 인근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주민의 주거·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특히 주거지역과 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나성동 면 자골목이 숙박시설 입점 제1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나성동 5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 4천662명(3천200가구)의 숙박시설 반대 서명운동 결과도 이날 제시했다.

비대위는 “세종시청이 있는 보람동의 경우 2021년 숙박시설 반대 운동에 5천500여명이 서명했고, 시는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종시가 모두가 만족하는 숙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단지 전경

반영해 숙박업 허용 추진을 철회했다”며 “보람동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나성동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숙박시설 허용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연 비대위 대표는 “주거지역 인근에 숙박시설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지 시내에 숙박시설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종시가 모두가 만족하는 숙

박시설 설치 후보지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나성·어진동 일대의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광, 상권 활성화 등 세종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시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거·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말 밝혔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업(객실 30실 이상)과 가족호텔업(객실 30실 이상)은 가능하지만, 호텔업(객실 기준 없음)과 소형호텔업(객실 20실 이상~30실 미만)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 한호석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내포 자동크린넷’으로

9월부터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운영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다음 달부터 ‘내포 자동크린넷’으로 이름을 바꿔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달노동자에게 안전기회소득을 지급하려는 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다친 황희찬·조규성 클린스만호 선발…허벅지 부상 이강인 제외

월 A매치 웨일스·사우디전 나설 대표팀 명단 발표…이순민 첫 태극마크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다친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조규성(미트윌란), 오현규(셀틱)를 불러들여 9월 A매치에서 첫 승리에 도전한다.

대한축구협회는 9월 유럽 원정 A매치를 앞두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뽑은 국가대표 선수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클린스만호는 다음 달 두 경기를 유럽 원정으로 치르는데, 8일 오전 3시 45분 (이하 한국시간) 웨일스의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웨일스를, 13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상대한다.

유럽에서 뛰는 대표팀 주축 공격수들이 줄부상을 입은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중 허벅지 근육을 다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제외한 대부분 선수를 소집 명단에 올렸다.

마찬가지로 허벅지를 다친 조규성(미트윌란)과 종아리에 부상을 입은 오현규(셀틱), 고질인 핸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이 재발한 황희찬(울버햄프턴)을 모두 불러들여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노팅



황희찬 드리블

엄) 등과 함께 대표팀 공격을 맡기기로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의 부상으로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겨 곤란이 예상된다”면서 “이강인이 조속히 회복돼 소속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정상 컨디션으로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행히 조규성과 황희찬의 경우 소속팀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번 소집 합류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대표팀 관계자도 “황희찬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이번 주말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태인 거로 확인했다. 오현규와 조규성도 A매치 기간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해서 명단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왼쪽 풀백 김진수(전북 현대), 골키퍼 송범근(쇼난 벨마레) 역시 부상으로 낙마한 가운데 김준홍(김천 상무)과 김지수

(브렌트퍼드), 이순민(광주FC)은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골키퍼 김준홍과 중앙 수비수 김지수는 지난 6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김은중호의 4강 진출 주역으로 활약했다. 이순민은 올해 K리그에서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의 핵심 미드필더로, 29살에 처음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동경(울산 현대)과 강상우(베이징 쿠안)는 지난해 1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중동 원정 이후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또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두차례 평가전에 소집됐으나 경기는 뛰지 못했던 양현준(셀틱)도 발탁돼 A매치에 데뷔할 기회를 잡았다.

린스만 감독은 소집 기간이 겹친다는 아시안게임 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양보’했다. 이에 따라 백승호와 송민규(이상 전북 현대),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박규현(드레스덴)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창원 훈련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최준용 기자



‘도민 화합의 축제’ 전북도민체전 9월 1일 김제서 평파르

전북도민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9월 1일부터 사흘간 김제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28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도민체전은 ‘금빛 희망 전라북도, 함께하는 김제에서’를 슬로건으로 14개 시·군 선수와 임원, 관중 등 2만5천여명이 참가해 39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본 대회에 앞서 민속경기와 소프트테니스, 유파, 줄다리기 등을 사전경기로 치

른다. 개회식은 9월 1일 오후 7시 김제시 민운동장에서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폐회식은 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정강선 도체육회장은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모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다”면서 “체육으로 하나가 되는 전라북도를 만들도록 대회 준비 상황을 꼼꼼히챙기겠다”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롯데 서튼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이종운 대행 체제



2019년 10월 롯데 2군 감독으로 부임해 KBO리그와 다시 인연을 이어갔다.

퓨처스(2군) 리그에서 선수를 육성해오던 서튼 전 감독은 2021년 5월 허문희 전 롯데 감독이 경질된 것과 동시에 1군 감독으로 부임했다.

감독 지휘봉을 잡은 첫해에는 하위권에 있던 롯데를 가을야구 경쟁권으로 끌어 올리며 자신이 감독으로 올라선 뒤에는 53승 53패 8무, 승률 5할로 마치 기대감을 키웠다.

롯데 구단은 2021년 시즌이 끝난 뒤 2023년까지 계약을 연장해 서튼 전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다.

많은 전문가는 전력이 허약한 롯데가 2022년에도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고, 서튼 전 감독은 큰 반전을 만들 어내지 못한 채 64승 76패 4무(승률 0.457), 8위로 시즌을 마쳤다.

계약 마지막 해인 올 시즌만큼은 시즌 초반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 박소희 기자

김수현·박혜정 등 19명, 세계역도선수권 출전…북한 불참



호 남자 81kg급 김우재가 합계 3위에 올랐다. 이 중 김수현만이 리야드 세계선수권에 출전해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여자 최종량급 박혜정(고양시청)과 손영희(부산광역시체육회)도 이 체급 최강 리원원(중국)에 이어 ‘2위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남자 102kg급 진윤성(고양시청)과 장연학(아산시청)도 메달권으로 평가받는다. 리야드 세계선수권은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 꼭 출전해야 하는 ‘의무 참가 대회’다. 파리 올림픽 랭킹 포인트도 걸렸다.

북한 역도는 2021년, 2022년에 이어 이번 세계선수권에도 출전하지 않는다.

/ 임해성 기자

‘프로축구 입단 뒷돈’ 안산FC 전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



프로축구 구단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가 28일 두번째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지난 7일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1일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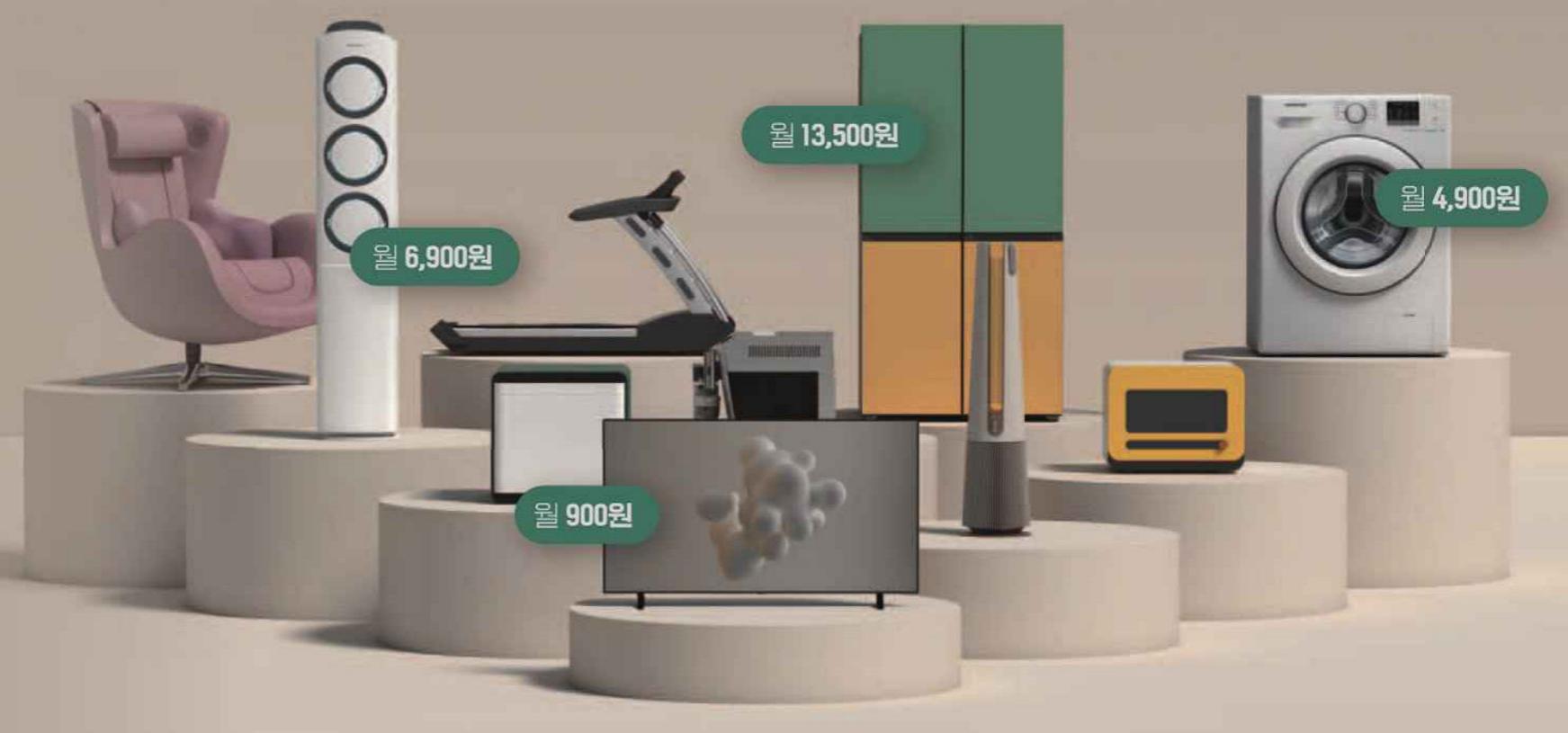
오전 10시 11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선수 입단 대가로 외제차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구속기소)씨에게 현금 1천만원과 1천7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2천700만원을 쟁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9월 당시 감독대행이던 임종현(57·구속기소) 전 안산FC 감독에게 감독 임명 대가로 9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아버지인 흥모씨에게 시가 6천15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박민숙 기자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뉴진스 “고민하고 노력 들인 앨범…성과 이뤄 뿐하고 행복”

두 번째 미니음반 활동 마무리…빌보드 앨범 1위·해외 음악 축제 무대

그룹 뉴진스가 큰 성공을 거둔 두 번째 미니음반 '겟 업'(Get Up) 활동에 대해 “예상보다 더 이르게 많은 성과를 이루고 사랑받을 수 있어서 정말 뿐하고 행복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진스는 이날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이번 앨범은 뉴진스 단체로도 멤버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들인 앨범”이라며 애정을 드러낸 뒤 활동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뉴진스는 '겟 업'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또 ‘슈퍼 사이’(Super Shy), ‘ETA’, ‘쿨 위드 유’(Cool With You) 세 타이틀곡을 한꺼번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시켰다.

어도어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세 곡을 동시에 진입시킨 K팝 걸그룹은 뉴진스가 최초”라고 소개했다.



걸그룹 뉴진스

‘슈퍼 사이’는 ‘핫 100’에서 최고 순위 48위를 기록했고 6주 연속 머무르고 있다. ‘겟 업’은 ‘빌보드 200’에 4주 연속 진입 중이다. ‘슈퍼 사이’는 이 밖에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7주 연속 진입해 주류 팝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이번 앨범은 멜론 등 국내 음원 차트 정상을 훔쳤었고, 실물 음반은 발매 첫 주에만 165만장이 팔려나갔다.

뉴진스는 특히 이달 3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와 일본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서머소닉’에 올라 현지 관객을 열광시켰다. ‘슈퍼 사이’ 유튜브 쇼츠 영상은 한국, 미국, 인도, 영국 등지에서 67만개, 틱톡에서는 관련 영상 94만개가 만들어지며 전 세계적인 챌린지 열풍도 일었다.

어도어는 “뉴진스는 기존 K팝 형식에서 벗어나 친근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며 “트리플 타이틀곡에 수록곡 전곡 뮤직비디오 제작이라는 과감한 전략도 통했다”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아울러 파워퍼프걸·애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브랜드과 손잡은 것은 협업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곡으로 음악 축제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라며 “항상 함께해주는 버니즈(뉴진스 팬),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 이은정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유인촌 문체특보, 연예 단체 3곳 만나 피프티 사태 논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문체특보)이 국내 주요 연예 단체를 만나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촉발된 연예계 탐파링(전속계약

연예기획사 전속 표준계약서 수정, 연예 계 FA(Free Agent·자유 계약) 제도 도입, 탐파링 시도 제재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예협 관계자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 뿐 아니라 탐파링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현안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현성 기자

다이나믹 듀오, 오늘 10집 파트 2 발표



다이나믹 듀오 개코(좌)와 최자(우)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는 28일 정규 10집의 두 번째 파트 ‘투 키즈 온 더 블럭 파트 투’(2 Kids On The Block - Part.2)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아메바컬쳐가 밝혔다.

아메바컬쳐는 “투 키즈 온 더 블럭”은 다이나믹 듀오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펼쳐낸 한 장의 이력서 같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눈물 점’과 곡명이 눈길을 끄는 ‘정우성이정재’, 지난해 선공개된 ‘시간아 멈춰라’까지 총 세 곡이 담겼다.

다이나믹듀오는 이번 앨범으로 개코와 최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이후의 삶, 사랑, 사색을 풀어냈다. 진솔한 가사가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정우성이정재’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괴식대학’ 크루들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노래다. 배우 이병헌이 전작 인트로 내레이션을 맡은 데 이어 의외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이나믹 듀오는 올해 10집과 함께 2014년에 발표한 ‘AEAO’가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 순위 역주행을 이뤄내며 큰 관심을 받았다.

/ 백건우 기자

임형주, 내달 세종문화회관서 데뷔 25주년 기념 공연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다음 달 16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제 데뷔 20주년 및 국내 데뷔 25주년

을 기념하는 단독 콘서트 ‘킹 오브 팝페라’(King Of Popera·팝페라의 제왕)를 연다고 소속사 디지엔콤이 28일 밝혔다.

임형주는 이번 콘서트에서 자신이 창단하고 음악감독으로 몸담은 ‘코리안 내

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코리스 그룹 ‘뉴 워즈덤 하모니’ 등 총 50인조 연주단·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하늘과’, ‘부디’(SBS 드라마 ‘왕과나 OST) 등 히트곡은 물론 클래식, 팝, 재즈를 아우르는 노래를 들려준다.

/ 황지성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다시 힘낼 수 있도록 한수원의 에너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ENERGY UP!

[자영업자분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힘들지만 보람 있으니까 랜찮아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한수원의 무한 에너지로 힘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대 앞에 작아지지 않을 힘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 청년의 힘도 강해질 테니까**

|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

우리 청년에게 우리의 힘을

기대출 제한 없고, 금리까지 부담 없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 청년에게 힘이 되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확정금리 연 5% (최초 1년간)	기대출 한도 차감 없이 최대 500만원 대출 가능 (CB등급에 따라 차등)	중도상환수수료 Zero 우리 WON뱅킹 통한 무방문 / 무서류 대출
-----------------------	--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씨 II)」 대상은 만 34세 이하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급여 소득자입니다. 개인신용평점 및 내부 신사 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5백만 원 대출금리는 연 5.0%입니다. 상품 기입 후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가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우리은행 내부 산출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 최종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도, 소득·담보·병력·보험·증인·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어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체 이율은 적용 금리 + 연 3%(마다 연체 1회은 연 12%)이며 중도상환해제금은 반제됩니다. 민기일시상환방식으로 아는 바 17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이며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입니다. 단, 최초 1년간은 확정금리 적용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제의 대상입니다. 대출 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상(개인신용평점, 재직 연 소득, 대출 현황 및 금융거래내역 등)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상단의 대출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재 연적 제한으로 상품의 내용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참조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일 2023.08.11~2024.12.31

우리 WON뱅킹으로
바로 가입하기